

# 정부-학계 '진보 논쟁' 충돌 양상

### 김창호 홍보처장·조기숙씨 진보 비판 가세 대선 앞두고 진보진영 분열 우려 목소리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진보성향 학자간 이념 논쟁이 점점 충돌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다.

진보진영 학자들의 잇따른 참여정부 비판과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격에 이어 20일에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를 놓고 진보진영의 위기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보 학자 출신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0일 국무회의 브리핑 후 진보진영내 논쟁과 관련 "진보의 핵심

은 유연성에 있는데 유연성을 상실한 진보는 진보로서의 자기가치를 실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정부의 비판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들이 참여정부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대목이 신자유주의인 데 더 많은 양극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다른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신심이 옹호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이른바 반진보 태도와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기숙 전 수석도 이날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설명비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참여정부 실패,

정당간 평가나 까라는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전횡적인 개체주의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브리핑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는 장문의 글에서 진보진영을 향해 "참여정부 때문에 진보 진영이 망하게 생겼다고 원망한다면 지나친 사기"라며 "우리나라가 진보진영만 사는 나라인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이종석 태도를 버리고 사고와 행동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성을 가지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진보진영에 각을 세우며 태도변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진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한미자유무

역협정(FTA) 문제 등 임박한 주요 국경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왔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교수는 지난해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논문 기고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무능력과 비개혁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 교수는 지난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며 "국민 의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실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

# 유시민 "한나라 집권 가능성 99%" "우리당 곧 소멸... 분당이 재집권 희망 날려"



정국 전방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가 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분당사태 이전만 해도 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10% 있었지만 분당으로 그것마저 날라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유 장관의 주요 발언.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열린우리당 해체는) 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우리당 창당은 당시 양왕조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와 같은 의미의 당 강령 1조 '모든 것은 당원으로 부터 나온다'이다. 민주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왕조→과두체제→공화제로 변모해야 한다.

이전의 당은 대통령이나 보스 1인의 명령에 의해 공천이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과반

수를 얻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우리당 안에서 당 강령 1조를 없애자는 말이 나왔다.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은 과두체제로 잘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당은 아니다. 아마 당은 곧 없어질 것이다. 분당사태 이전만 해도 열린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10%는 있었다. 하지만 분당으로 그것마저 날라갔다.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은 99%이다.

◇고건 전 총리 '예고된 행보'=고건 전 총리도 세를 늘리려 했지만 당을 만들지 못했다. 갖대도 없었고 자제도 없었고 때때로 고건 전 총리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물러들었지만 자신들이 희생을 한다는 등 스스로 자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향후 행보는=나보고 (노 대통령의) '실세', '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개헌을 요구할 때 나에게 상의 한마디 없었다. 나는 한국인 100명에 대한 평전을 쓸 것이다. 옛날 마포에 작은 사무실도 하나 내고 실제로 준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 의원들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관 5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민주당 조순형 의원, 임재정 국회의장(수석), 민주당 김종민, 손봉숙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이계경, 황우여 의원. /연합뉴스

## 고건 전 총리 불출마 한달만에 외부 공식 일정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한달여만에 집거를 끝내고 공식 외부일정을 가졌다. 고건 총리는 20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방한 중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 애스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와 티타임을 가졌다고 김덕봉 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이날 만남은 페리 전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한미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고건 총리가 국가원로로서 페리 전 장관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건 총리는 앞으로도 국가원로 겸 평범한 시민으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 총리는 앞으로 연지동 개인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지인들과 만나 등 정치활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계획이다.

고건 총리는 지난달 1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달여간 자택과 지방을 오가면서 외부와는 거리를 두며 두문불출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고건 총리의 정치 재개설에 대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통합신당모임 '차별화' 고심

### 우리당·한나라 사이 끼어 지지도 '바다세' 서민·중산층 중심 중도개혁 노선 주력할 듯

열린우리당 집단탈당 그룹인 통합신당모임(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이 '차별화' 화두를 놓고 고심 중이다.

원래 3당으로서의 위연을 갖고 있지만 정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차별화된 목소리와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통합신당모임내에서는 국민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지 못하면서 스스로 탈당 명분으로 내건 신당 추진의 동력마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 연휴기간 실시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모임에 대한 지지도가 '바다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관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에 대한 지지도가 0.5%에 그쳤다. 열린우리당은 14%, 민주당은 5%였다. 또 20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3.2%에 그쳤고 열린우리당은 12.6%, 민주당은 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국민들이 탈당했다는 정도만 알지, 모임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정책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합신당모임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MBC 여론조사

주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종걸 정책위의장과 강봉균 의원 등 정책폭들이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내주부터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집회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표적 서민·중산층 정책과제로 ▲지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임대공과 지원 ▲노인수발보급 기초노령연금급부 적극 추진 ▲구도심권 활성화 위한 사회간접자본 활성화와 재래시장 상가의 리모델링 지원 추진 ▲자영업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차별화 시도에 대해 통합신당모임 내부에서 반론도 적지 않다. 독자적 정체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 신당추진을 위한 '결사체'의 성격인 만큼 무리한 정책 차별화는 오히려 신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4·25 재보선 연합공천 어려울 듯"

### 김효석 "홍업씨 공천 신청편 당 절차 따를 것"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범여권의 4·25 재·보궐선거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 "가능한 욕심을 부려볼 수 있지만 지금 정치일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보인다"며 "연대가 가능하면 연대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독자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열린우리당이 분열과정에 있기 때

문에 대화 상대도 쉽지 않고, 연합공천이 가능할 것인가를 봐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합공천은 얼른 보면 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정치개편은 한나라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정치개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합공천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연합공천을 위해 정치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

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의 무안·신안 무소속 출마설과 관련, "처음 듣는 얘이지만 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민주당이 공당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홍업씨가 만약 공천을 신청한다면 공직후보자사서특위 등 원칙적인 당내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 "당론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연합공천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쉽게 성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며 당내에서 더 논의를 해보아야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산행안내

2월 22일(목)  
▲광주자연보전연합회 산행 원정팀 2월 22일(목)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광주자연보전연합회 산행 원정팀 2월 22일(목) 08시 00분 대안역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가곡산악회 산행 원정팀 2월 22일(목) 08시 00분 대안역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2월 24일(토)  
▲산악회 산악사 터널등산 2월 24일(토)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나사도산악회 산행 원정팀 2월 24일(토)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2월 25일(일)  
▲광주자연보전연합회 산행 원정팀 2월 25일(일)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산악회 산악사 터널등산 2월 25일(일)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2월 27일(화)  
▲광주자연보전연합회 산행 원정팀 2월 27일(화)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2월 28일(수)  
▲산악회 산악사 터널등산 2월 28일(수)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3월 1일(목)  
▲광주자연보전연합회 산행 원정팀 3월 1일(목) 08시 00분 광주역 10번 출구 역삼거리에서 출발 후 대안역까지 7,011-615-2279

### 24시간 생기가 돈다! 활기가 넘친다!

# 조이텍 Joy Tec

가정행복의 열쇠

사용대상  
• 발기부전 환자  
• 당뇨병으로 무기력한 분  
• 연세가 많으신 분  
• 남성의 지능이 없는 분

제품의 특징  
• 국내 최소형으로 휴대 및 조작이 간편, 누구나 손쉽게 사용  
• 나이나 원인 관계없이 사용효과 확실  
•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경제적이야 부작용이 없다

부모님께 효도선물

대주 메디칼  
DAEJOO MEDICAL  
상담전화 02)581-1949

## CANADA, SOUTH BAY COLLEGE OF TOM

# 한의대 입학생 모집!

영어에 능통한 세계적인 한의사가 되어, 넓고 탁 트인 캐나다, 미국에서 활약하십시오!

고③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입학대환영

(1) 한의예과 : 고교 졸업(예정)생 - 2년 과정(초기졸업1년 6개월)  
\* 한국 자재대학에서 수업 가능

(2) 한의학 본과 : 대학 2학년이상 학력소지 대학생 및 직장인 - 5년과정(초기졸업 : 3년 9개월)  
\* 한국에서 2개 학기 수업 후, 캐나다 본교에서 수업 가능.

광주 입학설명회문의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신관)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www.southbay.co.kr ☎ 0505-313-1515